

# 위령의 날 둘째미사 [11월 2일]

시 편 116(114- 115), 5- 6. 10- 11. 15와 16  $\text{♩} =$



(후렴) 나는주님 앞에서 걸어가리 라. 살아있는 이들의땅에서 걸으리- 라.



1. 주님은 너그럽고 의로우신 분      우리 하느님은 자비를 베푸시네.  
2. "나 참으로 비참하구나" 되뇌면서도      나는 믿었네.  
3. 주님께 성실한 이들의 죽음이      주님 눈에는 참으로 소중하네.



주님은 작은 이들을 지키시는 분      가 없는 나를 구해 주셨네.  
문득 놀라 나는      말하였네. "사람은 모두 거짓말쟁이."  
아, 주님, 저는      당신의 종. 당신이 제 사슬을 풀어주셨나 이다.